

2009. 1. 5 제206호

# 세계도시동향

## 목 차

### 문화·디자인

1. 매월 열리는 ‘도심 속의 예술’ 행사 (델라웨어주 월밍턴市)
2. 지상 최대 수상 크리스마스트리로 관광객 유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3. 문화도시 위상을 높이는 ‘문화 메트로폴리스’ 정책 (런던)
4. ‘겨울 마법’에 걸린 관광도시 연출 (베를린)

### 산업·경제

5. 외국인에게 친절한 도시 이미지 심기에 주력 (브라질 상파울루市)
6. 학문연구 정보 검색 포털사이트 개설 (베를린)
7. 2008년 도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로 예측 (도쿄)

### 건강·복지

8. 장애인이 만든 재활용 제품을 판매하는 ‘안테나 슝’ (도쿄)
9. 월세 아파트 복권을 뽑아보자 (뉴욕)
10. 시청 인턴십 통해 취업 예약하세요 (필라델피아)

## 목 차

### 도시환경

11. 내 집 나무 잘 보존하면 가옥세 감면 (브라질 산타페도술市)
12. 전기차량 이용 활성화 (런던)
13. '기름 없는 쾌적한 하수도' 캠페인 (도쿄)
14. 소중한 자연에 대해 공부하세요 (브라질 쿠리치바市)
15. 환경과 경제의 상생 전략 (런던)
16. 건물 지붕에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 확대 (베를린)
17.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인증제도 실시 (독일)
18. 3인 몫 하는 청소 카트로 도심환경 미화 (상하이)

### 도시교통

19. 교통정보를 한 곳에 모은 '교통 정보관' 사이트 운영 (런던)
20. 신형 하이브리드 버스, 운행 대수 4배로 확대 (런던)

### 도시계획·주택

21. 공동주거 프로젝트 추진 (뉴욕)
22. 문화재 지정 건물 및 공원 재개발 프로젝트 (독일 포츠담)

### 1. 매월 열리는 ‘도심 속의 예술’ 행사 (델라웨어주 월밍턴市)

○ 월밍턴市는 2008년 11월 ‘델라웨어 예술박물관’(Delaware Art Museum)에서 ‘도심 속의 예술’(Art on the Town) 월례행사를 개최함.

- 약 300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 무료 셔틀버스와 다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임.
  - ‘The Art Loop’으로도 불리는 이 축제는 도심지 곳곳에서 한 달에 한 번 여러 문화공연과 행사를 개최함.
  - 이번 행사에서는 지금까지 다섯 번 이상 행사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무료 영화티켓과 음료권을 제공함.
  - 독립영화극장, 어린이 합창단, ‘베티 카터 재즈단’(Betty Carter’s Jazz), ‘듀폰 클리포드 브라운 재즈단’(Du Pont Clifford Brown Jazz) 등 지역 내 단체가 참여해 시민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함.
- 월밍턴市는 인구 20만 명의 작은 도시지만, 유명한 다국적기업 본사만 20여 개 이상 입주한 비즈니스 타운임.
  - 여러 대기업이 입주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심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시작됐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1988년부터 ‘도시 축제’를 열어 왔음.

([www.ci.wilmington.de.us/artloop/index.htm](http://www.ci.wilmington.de.us/artloop/index.htm))

### 2. 지상 최대 수상 크리스마스트리로 관광객 유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리우데자네이루市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市의 명물로 자리잡은 지상 최대의 수상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과 불꽃놀이를 실시함.

- 크리스마스트리의 불이 꺼지는 2009년 1월 6일까지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함.

- 인근의 식당과 바(bar)도 호황을 누리고 있음.
- 1999년 처음 세워진 수상 크리스마스트리는 높이가 85m, 무게는 580톤에 이르며, 사용된 전구만 280만 개임.
- 지상 최대의 수상 크리스마스트리로 기네스북에 오름.
- 브라질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인 ‘브라데스코’가 해마다 약 1200명을 동원해 이곳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함.

([www.estadao.com.br/cidades/not\\_cid285951,0.htm](http://www.estadao.com.br/cidades/not_cid285951,0.htm))

### 3. 문화도시 위상을 높이는 ‘문화 메트로폴리스’ 정책 (런던)

○ 런던시는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하는 ‘문화 메트로폴리스’(Cultural Metropolis) 정책을 발표함.

- 이 정책은 런던시를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우선전략을 담고 있음.
- 음악과 예술 교육에 있어 창조적인 재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런던 외곽의 자치구 차원의 계획도 포함함.
- 런던시민을 위한 2009년 주요 이벤트 행사인 ‘런던 이야기’(The Story of London) 계획도 발표함.
- 런던시는 세계적인 문화와 창조 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적인 유물과 건물을 보존할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837](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837))

### 4. ‘겨울 마법’에 걸린 관광도시 연출 (베를린)

○ 베를린시는 경제·노동·여성부와 베를린 수도 마케팅회사와 함께 2004년부터 베를린 겨울관광 캠페인인 ‘겨울 마법’(Winter Magic)을 실시해 왔음.

- 이 프로그램이 최근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면서 베를린市的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겨울 관광업은 크게 변화했음.
  - 관광객 수도 2006년에 비해 2007년 8.6%가 증가함.
- 이 프로그램은 이색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둬.
  - 도심에 대규모 전통 크리스마스 장터를 재현함.
  - 수준 높은 문화행사 유치, 이색적이고 전통적인 문화공연 개최, 주요 쇼펍가의 화려한 거리 장식, 도시 한 가운데에서 눈썰매를 탈 수 있도록 이색적인 겨울체험 공간 구성, 크리스마스 특별 메뉴를 제공하는 요식업소 홍보 등을 市 차원에서 지원·홍보하고 있음.
-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무료 교통·숙박·숙식·공연티켓 추첨행사도 마련함.



([www.berlin.de/rubrik/hauptstadt/politik-aktuell/081201.html](http://www.berlin.de/rubrik/hauptstadt/politik-aktuell/081201.html))

## 한 줄 뉴스

- 브라질
  - 상파울루州, 텔레마케팅 전화 거부할 수 있는 법 제정
  - 쿠리치바市, 지역사회 문화활동 장소로 제공할 '도시 서커스장' 개장
  - 리우데자네이루市, 노숙자 도움 요청 전화서비스 24시간 운영

### 5. 외국인에게 친절한 도시 이미지 심기에 주력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市 공영 관광회사는 ‘친절한 도시 상파울루’를 목표로 택시기사와 안내원을 교육하고, 지하철역에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글귀가 쓰인 셔츠를 관광학과 견습생에게 입혀 배치함.

- 이러한 노력으로 친절한 도시 이미지가 외국인에게 각인되고 있음. 이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전 세계 36개 대도시 시민의 친절도를 테스트한 결과에서 입증됨.

· ‘우리는 얼마나 친절한가?’라는 주제의 조사 결과, 뉴욕(1위), 취리히(2위), 토론토(3위)에 이어 상파울루市가 베를린市, 크로아티아 자그레브市와 공동으로 4위임.

· 다이제스트 잡지는 해마다 도시의 친절도 등급을 매기는데, 상파울루市는 2007년(5위)보다 2008년에 한 등급 올라감.

([ultimosegundo.ig.com.br/economia/2008/11/05/sao\\_paulo\\_conquista\\_posto\\_de\\_4\\_cidade\\_mais\\_145cortes146\\_do\\_mundo\\_2098064.html](http://ultimosegundo.ig.com.br/economia/2008/11/05/sao_paulo_conquista_posto_de_4_cidade_mais_145cortes146_do_mundo_2098064.html))

### 6. 학문연구 정보 검색 포털사이트 개설 (베를린)

○ 과학과 학문이 혁신경제의 기초요소로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베를린市 경제·기술·여성부와 교육부는 베를린 수도마케팅 회사인 ‘Berlin Partner GmbH’를 통해 학문연구 정보 검색 포털사이트([www.berlin-sciences.com](http://www.berlin-sciences.com))를 개설함.

- 14개의 국립·사립대학과 70여 개의 대학 외 연구기관이 자리하고, 20만 명의 대학생·연구자·교수가 거주하는 베를린市는 국제적인 학문연구 입지도시로 평가받고 있음.

- 이 포털사이트는 600여 곳 연구기관에 대한 상세정보를 보유함.
  - 각 연구기관의 홈페이지 주소뿐 아니라 각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젝트, 출판물, 회원, 파트너 기관이나 단체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 놓음.
- 베를린市는 연구기관 관계자 외에, 기업인, 잠재적 투자자, 정치인에게 혁신 경제를 위해 경제와 과학 사이에 절실히 필요한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소와 산업 간의 역동적인 협력관계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12/01/115604/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12/01/115604/index.html))

## 7. 2008년 도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로 예측 (도쿄)

○ 도쿄都는 최근 2008년 도내 경제 성장률 예측 결과를 발표했는데, 도내 경제 성장률은  $-0.8\%$ 로 1997년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냄.

- 향후 경제 후퇴가 전망됨.
  - 경제 활동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이  $2.6\%$  감소, 서비스업이  $0.4\%$  감소하고, 10개 산업 중 3개는 플러스 성장이 예측됨.
- 도내 총생산은 92조 7479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  $-0.3\%$ 임.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 생산면에서는 10개 산업 중 5개가 플러스 성장으로 추이됨.
  - 지출면에서는 가계 최종 소비지출이  $1.1\%$  증가, 민간 주택투자는  $0.4\%$  증가, 민간 기업 설비투자는  $4.4\%$  감소로 추이됨.
- 도민 소득은 63조 1196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0.5\%$ 로 전망됨. 도민 피고용자의 보수는  $1.0\%$  증가, 기업 소득은  $3.1\%$  감소가 전망됨.

([www.metro.tokyo.jp/INET/CHOUSA/2008/11/60ibr400.htm](http://www.metro.tokyo.jp/INET/CHOUSA/2008/11/60ibr400.htm))



### 8. 장애인이 만든 재활용 제품을 판매하는 ‘안테나 슝’ (도쿄)

○ 도쿄都 신주쿠區 장애인 취업 복지센터에서는 장애인, 미취업 청년, 고령자의 취업 훈련 및 사회공헌 장소로 운영하는 커뮤니티 슝 ‘후라토 신주쿠 요츠야점’(ふらっと新宿 四谷店)을 2008년 11월 오픈함.

- 2007년 7월에 오픈한 1호점에서는 전국에서 모은 특산품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제작한 복지상품을 판매해 왔음.

- 제품별로 주요 소비층을 겨냥해 핵심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안테나 슝’으로 오픈된 4호점인 요츠야점은 지방 직산품 야채나 쿠키 등의 복지상품 판매 외에 중고 자전거 판매 및 수리도 하고 있음.

· 구내에 버려진 자전거를 장애인이 수리해 7000~1만 엔(약 10만~15만원)의 저가에 판매하는 본 기획은, 인기가 많아 수리량이 판매량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태임.

([headlines.yahoo.co.jp/hl?a=20081204-00000000-hsk\\_ic-113](http://headlines.yahoo.co.jp/hl?a=20081204-00000000-hsk_ic-113))

#### >>> 전문가 검토의견

- 우리나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광역단위로 1개소씩 지정·운영돼 시민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 판매물품도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물품만 다루고 있는데, 장애인 생산품은 비누, 목각제품 등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유도하지 못함.
- 도쿄의 안테나 슝 사례는 시민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점포를 개설하고, 판매물품도 장애인 생산품뿐 아니라 지방특산품, 자전거 판매·수리 등으로 다양화했다는 점에서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등 주민 접근이 용이한 시설 내에 설치하고, 상품 및 서비스를 다양화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김경혜 창의시정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khkim@sdi.re.kr)

## 9. 월세 아파트 복권을 뽑아보자 (뉴욕)

○ 뉴욕市는, 나날이 늘어가는 주거비용으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월세아파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2년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발의한 것으로, 주택난에 시달리는 수십 만 명의 뉴욕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됨.

-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라는 기초에서 시작된 이 주택 프로그램은 ‘아파트 임대 복권’ 행사를 기획함.
  - 뉴욕市 주택국이 후원하는 여러 아파트에 저렴한 월세로 입주할 수 있는 복권임.
-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은 원하는 평수와 지역을 정해 뉴욕市 홈페이지나 지역 사무소에서 응모할 수 있음.
  - 모든 아파트는 지역과 크기에 따라 월세가 각각 다르며, 각 월세에 따라 응모할 수 있는 연 수입의 범위가 정해져 있음.
  - 주택복권의 취지가 저소득 생활자의 복지를 위한 사안인 만큼 저소득 생활 가구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해 연 수입 범위를 설정함.
- 주택복권은 사설 부동산이나 브로커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으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市가 후원하는 양질의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게 됨.

([www.nyc.gov/html/housinginfo/html/home/home.shtml](http://www.nyc.gov/html/housinginfo/html/home/home.shtml))

## 10. 시청 인턴십 통해 취업 예약하세요 (필라델피아)

- 필라델피아市는 ‘The Destination Fellowship’이라는 장학기금을 통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필라델피아 시청과 산하기관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시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턴은 시정업무와 행정관리 및 지방정부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음.
    - 2009년에는 10명의 대상자를 선발해 시청의 각 과 혹은 지역구나 의회, 산하 사업소 등에 배치함.
    - 보수는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연간 4만 달러, 대학 졸업자는 3만 달러임.
    - 지원 자격은 2009년 9월 졸업예정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며, 기 졸업자는 졸업한 지 2년 미만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음.
- (www.phila.gov/destinationfellowship)

## 도시 환경

## 11. 내 집 나무 잘 보존하면 가옥세 감면 (브라질 산타페도술市)

- 브라질 산타페도술(Santa Fe do Sul)市는 인구 2만 7000여 명의 내륙 소도시로, 상파울루州에서 가장 녹지대가 많고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로 꼽힘.
- 산타페도술市는 자기 집에 있는 나무를 잘 보존하는 주인에게 가옥세를 감해주는 ‘녹색가옥세’(IPTU Verde)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市는 또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장려하고 하수구물을 정화 처리해 오염을 막고 있음.
  - 시내에서 나온 하수구물이 100% 정화 처리된 후 개울에 유입되기 때문에 시냇물과 폭포수가 깨끗하고 맑음.

- 市는 2009년부터는 배터리와 건전지를 별도 수거하는 사람에게 환경점수를 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oglobo.globo.com/sp/mat/2008/11/26/sp\_fica\_em\_100\_lugar\_no\_ranking\_das\_cidades\_paulistas\_que\_respeitam\_meio\_ambiente-586563707.asp)

### >>> 전문가 검토의견

-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녹지를 확보하고, 하천수를 깨끗하게 하며, 쓰레기 처리를 잘하여야 하는데, 산타페도술市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정책이 녹지 확보에 대한 세제감면 시행임.
- 서울시도 녹지 확보를 위해 ‘푸른 서울 가꾸기’ 계획에 따라 옥상녹화 지원사업, 용적율 완화 등을 통해 민간에서의 녹화를 유도하고 있음.
-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같이 자연환경이 양호한 사유지에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녹지활용협약을 비롯한 세제감면 등의 정책시행을 고려하고, 환경적인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김원주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wjkim@sdi.re.kr)

### 한 줄 뉴스

- 런던
  - 도심 혼잡통행료 확대구간(서부 런던) 무효화에 시민 2/3 찬성
  - 시장이 직접 주관하여 이민자에게 영국 시민권 수여
  - 도시 홍보 위해 2009년 새해 폭죽행사 허가

## 12. 전기차량 이용 활성화 (런던)

- 런던市는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량 개발 및 이용 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음. 2008년 11월 런던권역 내 자치구 대표들과 자동차·에너지 산업 관계자로 구성된 ‘런던 전기차 파트너십’(London Electric Vehicle Partnership)이 주관하는 회의가 처음 열려, 전기차량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합의함.
- 런던市는 市 소속 차량을 우선으로 전기차량 이용을 확대해나감으로써 자치구청과 카풀 센터, 민간회사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 전기차량을 이용할 경우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나 줄일 수 있음.
- 민관 관계자들은 전기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작성, 모범사례 발굴 및 소개, 자치구 합동으로 전기차량 관련 기준 표준화와 행정절차 연계, 전기차량 이용자에 대한 지원 확대, 투입 예산·인력 대비 최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조정기능 강화 등에 관해 합의함.
- 파트너십 운영에 관해서는 런던市 교통정책국장이 파트너십 회의를 주관함.
  - 런던市 교통공사는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전기차량 충전소의 시설투자비용을 지원해 시설 확대에 앞장서고 있음.

([www.newride.org.uk](http://www.newride.org.uk))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879](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879))

###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市는 기후변화 방지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수소 자동차 및 전기 자동차는 온실가스배출량 감축효과가 클 뿐 아니라, 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 기존의 교통 관련 에너지공급시설은 화석연료 자동차에 기반을 두고 있어 수소 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그린 카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서울시도 자동차의 에너지 공급시설은 석유, LPG, CNG 등 화석연료 공급시설중심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이 보급되지 않아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의 주요 장애요인 중의 하나임.
- 수송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운행 관련 법·제도적 제한요인 해소와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등으로 전기 자동차 보급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함.

/조항문 도시기반본부 연구위원(chohm@sdi.re.kr)

### 13. ‘기름 없는 쾌적한 하수도’ 캠페인 (도쿄)

○ 도쿄都 하수도국은 2008년 12월을 ‘기름 없는 쾌적한 하수도’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도민과 사업자에게 하수도에 식용 기름을 흘리지 않도록 홍보함.

- 하수도에 흘러 들어간 기름은 하수도관을 막히게 하거나 악취의 원인이 됨.
  - 하수도관에 부착된 기름은 하얗게 굳어 있다가 비가 내리면 기름 덩어리를 형성해 강이나 바다에 유입돼, 수질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도내 역이나 상가에 캠페인 포스터를 게시하고 지하철이나 역사 내에서 캠페인 동영상을 방영함.
  - 적은 양의 기름으로 우리 몸에도 좋고 하수도에도 좋은 요리법을 작성해 하수도국 각 사무소 및 물재생 센터에서 배포하고, 각종 건강보험조합이나 제약회사 등의 홈페이지에도 링크해 인지도를 높임.
  - 식용기름 사용량이 많은 음식점을 개별 방문해 기름 수집기 설치 및 적절한 관리방법을 홍보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11/20ibrd00.htm)

#### 14. 소중한 자연에 대해 공부하세요 (브라질 쿠리치바市)

- 쿠리치바市는 식물과 동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당신과 자연’ 전시회를 개최함. 전시회를 통해 시민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종이로 동물과 식물의 내부구조를 만들었으며, 종이로 만든 커다란 식물 잎 모양 위에 아이들이 누워볼 수 있도록 함.
- 식물과 인간의 순환기 시스템을 비교해 볼 수도 있으며, 인간과 동물의 소화 기관 활동에 대해서도 볼 수 있음.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4304](http://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4304))

#### 15. 환경과 경제의 상생 전략 (런던)

- 런던市는 최근 ‘그린 이코노미’(Green Economy)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까지 낮추기 위한 우선순위를 발표함.
- 그린 이코노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런던市를 에너지와 쓰레기 관련 경제의 중심지역으로 발전
  - 이산화탄소 저감 지역 새로 지정
  - 쓰레기를 재활용한 경제 혜택
  - 녹지공간 조성
  - 나무 1만 그루 심기
  - 에코 이코노미 활성화
- 런던市는 2009년에 에너지, 쓰레기, 대기질과 관련된 환경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예정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859](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859))

## 16. 건물 지붕에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 확대 (베를린)

○ 베를린市 건강·환경·소비자보호부는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 확대로 공해 없는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기후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태양열 발전 포럼인 ‘Solardachbörse’와 부동산매니저먼트 회사 ‘BIM’과 함께 건물 지붕에 더 많은 태양열 발전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원하기로 함.

- 베를린市에는 태양열 발전시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5356개의 온수시설과 1585개의 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있음.

- 베를린市는 약 1000여 채 건물 지붕을 대상으로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가 적합한지 조사함. 적합성이 증명된 건물을 웹사이트에 소개해 태양열 발전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함.

· 투자자들은 적합성이 증명된 건물을 임대계약해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음.

· 적합성이 검증된 14개의 학교지붕에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투자자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 약 1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생산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11/25/115145/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11/25/115145/index.html))

## 17.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인증제도 실시 (독일)

○ 독일 교통·건설·도시발전부와 ‘독일 지속가능한 건축협회’(DGNB: Deutsche Gesellschaft für nachhaltiges Bauen e. V.)는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포괄적 개념의 가치평가 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함.

- 조사대상 건축물은 생성에서 소멸까지 전체과정이 평가되고, 우수성이 증명된 건물에 대해 ‘지속가능한 건축 인증마크’(Deutsches Gütesiegel Nachhaltiges Bauen)가 수여됨.



- 이 마크를 통해 건축주, 설계자, 사용자, 투자자 등 모든 건축시장 참여자들은 지속가능성의 분야에서 우수한 건물을 판단할 수 있게 됨.
  - 인증체계와 규정은 독일연방 교통·건설·도시발전부에서 마련했으며, 시험 단계를 거쳐 2009년 1분기부터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우선 새로 건설된 오피스텔 건물과 관청건물부터 인증마크가 수여될 것임.
- 독일연방 교통·건설·도시발전부는 인증마크 도입을 통해 순수비용 경쟁에서 품질경쟁까지 지속가능성의 모든 분야에서 독일 건축업계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www.nachhaltigesbauen.de/deutsches-guetesiegel-nachhaltiges-bauen.html](http://www.nachhaltigesbauen.de/deutsches-guetesiegel-nachhaltiges-bauen.html))

## 18. 3인 몫 하는 청소 카트로 도심환경 미화 (상하이)

- 2008년 11월 상하이市에 환경미화원 대신 ‘청소 카트’가 등장해 화제임. 이 청소 카트는 쓰레기 수거, 물 청소, 진공 청소 등이 가능하며,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맞아 상하이市가 도시 전체에 보급하고자 하는 청소차량임.
  - 청소 카트는 수거한 쓰레기통을 내장하고 있어 악취가 나지 않고, 미관상 저분하지 않음.
    - 청소 카트 1대는 청소인력 3명의 역할을 함.
    - 2010년 전까지 난징루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번화한 거리에 집중 배치할 예정임.
  - 상하이市는 또한, 환경미화원이 외국인의 길 안내, 화장실 안내 등 도우미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 영어회화를 교육 중임.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308708.html](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308708.html))

### 19. 교통정보를 한 곳에 모은 ‘교통 정보관’ 사이트 운영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교통정보관’(Travel Tools)을 개설함.

- 여정 사전계획, 이동전화 서비스, 야간교통정보의 3개 주제로 구성함.
  - 여정 사전계획에는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도보와 자전거 이용 경로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여정 검색, 지도, 운행시간표, 실시간 교통정보, 역간 출발시간표, 주말 운행중단 정보, 지역별 사설 택시이용 정보 등이 있음.
  - 이동전화 서비스에는 무료 교통정보 문자, 주제별 맞춤형 문자, 여정검색 문자, 이동전화 지하철 지도로 구성됨.
  - 야간교통정보에는 첫차·막차 운행시간, 야간버스 지도, 사설택시 정보 문자 검색 등을 제공함.
  - 지하철 시설개선 사업의 진행상황과 관련 교통정보도 게시함.

([www.tfl.gov.uk/tfl/traveltools/default.aspx](http://www.tfl.gov.uk/tfl/traveltools/default.aspx))

### 20. 신형 하이브리드 버스, 운행 대수 4배로 확대 (런던)

○ 2008년 12월 신형 하이브리드 버스차량 25대가 시험운행에 들어감으로써 2009년까지 현재의 4배 규모로 하이브리드 차량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런던시의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12월말 25대, 2009년 1월에 18대가 각각 추가 운영되며, 연평균 신규버스 투입대수 500대 수준을 고려할 때 유럽 내에서 가장 큰 규모임.
  - 런던시는 2012년부터는 신규 버스차량 전부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투입해 총 운영 대수는 300여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런던市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적극 활용하는 데는 기존 디젤차량에 비해 저공해(소음, 배기가스) 고효율 청정에너지로 운행되기 때문임.
  -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료 이용은 적게 하면서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음.
  -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효과는 기존 버스에 비해 소음이 현저히 줄어든 저소음 차량이라는 점임.
- 런던市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확대 투입하기 위해 버스 제작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청정기술 개발에도 한몫하고 있음.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0631.aspx](http://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0631.aspx))

## 도시계획·주택

### 21. 공동주거 프로젝트 추진 (뉴욕)

- 최근 경기상태가 나빠지면 공동주거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는 유리하게 됨. 불경기에는 손해를 보고서라도 땅을 처분하려 드는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임. 뉴욕市 브루클린(Brooklyn) 지역 주민들은, 건축 예정인 고층 고급아파트 단지를 매입해 서민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음.
  - 기존의 개발업자에 의해 계획된 아파트 단지보다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지며 수수한 외관의 주거단지를 만들 계획임.
  - 공동 주거단지에는 다양한 이점이 있지만, 사람들이 당장 필요한 것에 집착하는 대신 인간의 생애주기를 따라 필요하게 되는 다양성을 수용하도록 계획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이점을 가짐.

([www.treehugger.com/files/2008/12/cohousing-comes-to-brooklyn.php](http://www.treehugger.com/files/2008/12/cohousing-comes-to-brooklyn.php))

([www.nytimes.com/2008/11/30/realestate/30cov.html](http://www.nytimes.com/2008/11/30/realestate/30cov.html))

## 22. 문화재 지정 건물 및 공원 재개발 프로젝트 (독일 포츠담)

- 문화재로 지정 보호되는 건물에 대한 대부분의 계획과 관리는 국가가 담당함. 2008년 11월 독일연방 건설부 국가비서관과 프로이센 성·정원재단(Stiftung Preußische Schlösser und Gärten)은 포츠담시에 있는 프로이센 제국 시대의 성과 공원의 재개발과 신축을 위한 포츠담 프로젝트에 서명함.
  - 이 프로젝트는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및 공원공간에 대한 최초의 PPP(민관 파트너십: 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 사례임.
    - 이제까지 PPP 프로젝트로 계약된 건축 프로젝트들은 100여 개가 넘지만 대부분 학교와 관청건물이 대상이었음.
    - 이번에는 프로이센 성·정원재단은 포츠담 성에 있는 역사적 문화재 건물과 공원 등 9개 시설의 재개발을 민간파트너에게 넘기기로 함.
  - 이 프로젝트는 2012년 프로이센 제국의 프리드리히 대제 탄생 30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완공될 예정임.
    - 투자총액은 2100만 유로로, 개발을 맡은 민간기업은 앞으로 30년간 설계, 재정, 건물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됨.

([www.bmvbs.de/Presse/Pressemitteilungen-1632.1058856/PPP-Pilotprojekt-Stiftung-Preu.htm](http://www.bmvbs.de/Presse/Pressemitteilungen-1632.1058856/PPP-Pilotprojekt-Stiftung-Preu.htm))

### 한 줄 뉴스

- 상하이
  - 2만 5000여 종의 희귀 화초가 자라게 될 중국 최대 '국가 식물원' 건설 계획
  - 2009년부터 모든 공무원집행 기관의 자금 결제에 카드 사용을 의무화